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4호 [주간 제2588호]

주제 109
(2020)년 4월
4일
토요일
음력 3월 12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백두의 기상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령도자

국제사회계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

《지금 조선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백두산에로의 답사열풍이 전례 없이 세차게 불고있다.

백두의 눈보라는 살을 베는듯 한 눈가루, 얼음가루의 돌풍이 천지를 휩쓰는 말그대로의 칼바람이다.

이런 칼바람을 맞받아 헤치며 과거 조선백두산들이 일본군과 싸웠다.

그들이 지녔던 결사의 의지와 굴함없는 공격정신, 백두산에서 지어낸 백두산의 투쟁정신은 국제사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추진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 몸소 백두산에 오르시려는 것은 조선혁명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김정은원수께서는 백두산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부닥치는 난관과 도전들을 극복하고 혁명정신 버리지 말자는 불굴의 정신으로 굳은 결심을 백두산에 새겨넣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해 오신 격렬한 공격전의 나날이었다.

이것은 얼마전 《인터내셔널 미디어》, 《국제일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신문들에 실린 글의 일부 내용이다.

위대한 백두령의 발걸음 따라 수많은 남녀로소가 붉은기를 펴리며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열에 오르고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백두산 공격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지동치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항일선열들이 지녔던 백두불굴의 혁명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한생의 재부으로 간직하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의지와 굴함없는 투쟁정신은 국제사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맛으며 항일선열들이 지녔던 백두불굴의 혁명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한생의 재부으로 간직하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의지와 굴함없는 투쟁정신은 국제사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백두산위인청송국제추진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 몸소 백두산에 오르시려는 것은 조선혁명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으로 된다.

김정은원수께서는 백두산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해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부닥치는 난관과 도전들을 극복하고 혁명정신 버리지 말자는 불굴의 정신으로 굳은 결심을 백두산에 새겨넣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해 오신 격렬한 공격전의 나날이었다.

이것은 얼마전 《인터내셔널 미디어》, 《국제일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신문들에 실린 글의 일부 내용이다.

위대한 백두령의 발걸음 따라 수많은 남녀로소가 붉은기를 펴리며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열에 오르고 공화국의 그 어디에나 백두산 공격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지동치는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항일선열들이 지녔던 백두불굴의 혁명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한생의 재부으로 간직하려는 공화국인민들의 의지와 굴함없는 투쟁정신은 국제사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을 과감히 짓부시며 달음쳐 오신 간고한 전투적행로들과 격변의 나날들을 뜨겁게 새겨보시었다.

그이의 백두산군마행군은 사회주의건설에 펼쳐나선 조선인민을 보다 새로운 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인디아신문 《라이프 유립》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시며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고계신다고 전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에는 전체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감으로써 선대수령들의 유훈대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져있다.

누구든 로작을 읽어보든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고립압박책동속에서 어떻게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빛내어올수 있었는가를 잘 알수 있을 것이다.

북부시에 솟아오르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인듯 이 나라 북변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백두성산에 올라 그 장쾌한 경관을 부감한 방글라

데슈군정치연구소 조 위원장은 백두산에 뿌리를 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 것을 백두산정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고 토로하였다.

베네수엘라공산주의청년중앙리사회 총서기는 조선방문의 나날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목격하면서 그 불굴의 힘에 대해 느낄수 있었다.

적대세력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조선의 막강한 군사력이기 전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며 전체 인민의 정신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시 조선인민의 친우협회는 인터네트홈페이지

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초강도제재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국가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선의 모습이 만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여느 나라 같으면 당장에 붕괴되거나 손을 들고 나았겠지만 조선은 더 역세에 솟아나서 자기가 선택한 길로 나아가고있다.

조선의 신비로움은 이 나라를 이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강한 정신력에 기인된다.

나 이 제 리 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진

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이지의 온갖 시련을 뚫고 백승만을 아로새겨온 조선혁명의 전 로정은 사상의 힘이 무한대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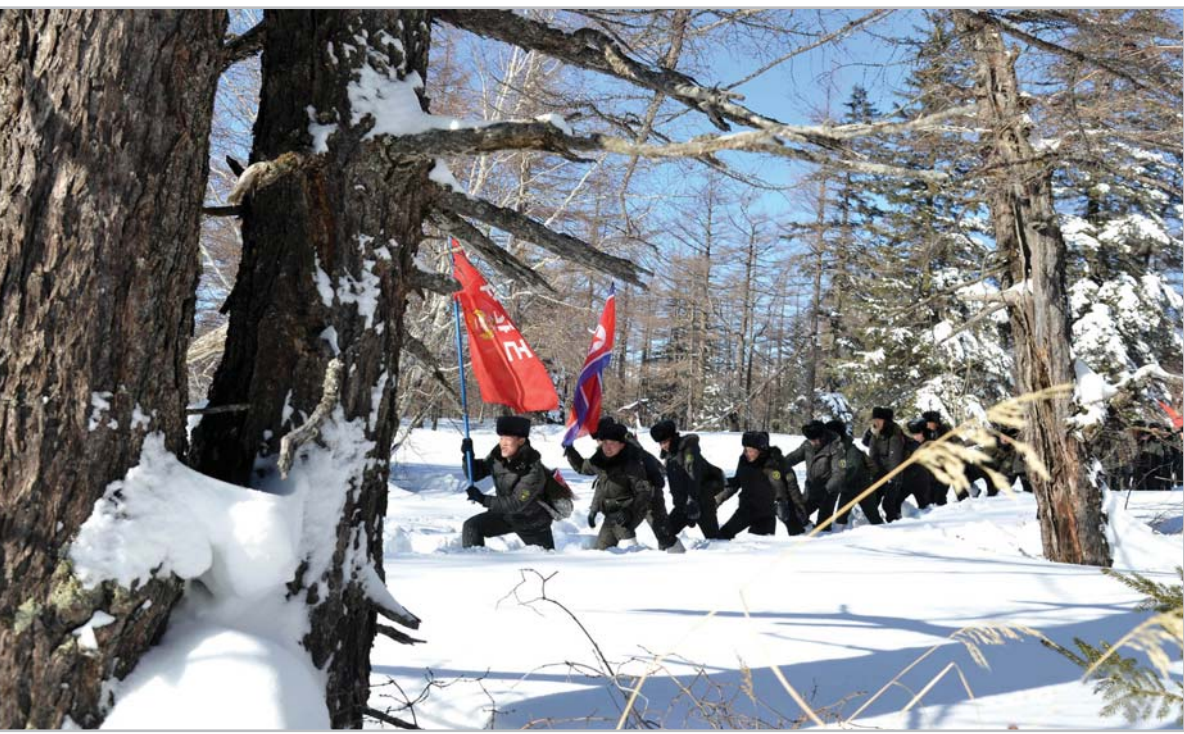
조선에 기본 사람들은 난관에 굴하지 않는 이 나라 인민의 정신력에 대해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로제야의 인터네트홈페이지 《이르프즈 크볼로그스프루》는 조선인민은 비상한 정신력으로 적대세력들의 극단적인 고립압박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생상과 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탈리아국제그룹 리사장은 조선인민이 자기의 녀으로 체현한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로지 승리만을 향해 전진하는 앞으로의 공격정신이라고 격찬하였으며 아랍사회부흥당 중앙지도부는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만년시련을 헤쳐나가는 주체조선의 공격정신을 열렬히 찬양한다고 성명하였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 전국협회 부위원장인 제국주의세력의 끈질기게 가혹한 압박책동속에서도 힘차게 돌진해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정신에 탄복하게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로제야 포름도서출판사 책임주필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수천t의 세멘트 생산보장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이 평양종합병원건설용세멘트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연설에 접한 이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생산돌격전으로 일평교생산실적을 종전의 110%로 끌어올리면서 수천t의 질 좋은 세멘트를 병원건설장으로 보내 주었다.

일군들은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생산자대중을 총력기시켰으며 각종 원료, 연료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경제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생산현장에서 종산투

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소성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소성로들의 생산능력이 최대로 발휘될수 있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로의 가동률을 높여 질 좋은 크링카를 더 많이 생산하였다.

세멘트직장의 로동자들도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설비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생산실적을 이전보다 매일 1.2배로 올렸다.

보장부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계획수행에 이바지하였다.

주강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동적기술혁신운동으로 새로운 주물품생산방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매월 수천kWh의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기술지표가 원만히 보장된 주강주물품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원료보장을 맡은 상원석회석광산, 삼청광산, 일출봉광산에서는 채굴설비들과 륜전기재들의 실동률을 높여 석회석과 철광석 등의 생산량을 훨씬 늘였다.

화천탄광의 탄부들은 굴진과 채탄에 필요한 압축기를 자체로 생산리용하고 련속친공, 련속파라를 들이대면서 석탄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1.4분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 보내줄 세멘트생산에서 계속 혁신하고있다.

본사기자

은 거레가 소원하는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 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형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이

오늘날 지구상에는 령도와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도 있고 높은 경제성장을 뽐내는 나라도 있고 방대한 군사력을 시위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공화국과 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는 나라는 없다.

언제나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세인의 찬란을 받고 있다.

《행성에서 가장 넓고 매력적인 령도자로 찬사를 받게 시는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멋, 그것은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사랑이다. 환하게 웃으시는 그의 미소에 마음이 풀리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 문제는 남의 힘을 빌어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력사는 외세가 다른 나라의 민족내부문제를 오히려 해결해준 실례를 알지 못하고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온것도 다름아닌 외세이고 그 추종세력들이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것

을 달가와하지 않는 침략적인 외세는 항상 남조선과 그 주변에 최첨단살인전쟁장비들을 전개하고 남조선호전세력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벌여 놓으면서 겨레의 높아가는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족의 리익이 참혹히 유린당하고있는 오늘날의 국제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겨레로 하여금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

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설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겨레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감에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족의 주체적력량이 강해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외세 굴종, 사대매국책동을 짓부

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조선민족이 사는 모든 곳에서 통일애국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가 가는 성스러운 통일열정에서 자주는 변함없는 표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신기복

통일열정에서 변함없는 표대

있다. 민족의 생산증파와 직결된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없고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몰락당하게 된다. 이것은 외세에 굴종, 의존하여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민

을 최우선, 절대시 하는 것이겠는 건물을 하나 지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십시오. 그들이 하는 활동의 대부분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나라의 방방곡곡 인민

《인민천국의 멋진 별세상》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가 멋진 분이시니 조선도 세상이 감탄하는 인민천국의 멋진 별세상으로 되고있다.》(로제야의 인터네트신문)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진정한 애민정치를 펴나가신다. 인민의 리익

를 찾는것으로 보내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할것을 강조하신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어머니로, 스승으로 따르며 흠모하고있다.》(이란의 일나통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철학은 숭고한 인민관을

로 떠올리는데 그의 정치철학의 특징이 있다. 그의 인민사랑,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치철학은 조선사회의 민심을 그러잡고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불러일으키고있다.》(에필드신문 《알 아흐바르 알 파자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신다.》(로제야의 인터네트신문 《포름》)

오로지 인민만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끊임 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의 자욱과 더불어 이 땅에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길이 전해질 인민사랑의 서사가 펼쳐지고있으니 그이를 칭송하는 세인의 진정어린 목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어린 첫삽



락원의 강으로 전변된 보통강



토지정리로 전지개벽된 어리리벌



인민의 웃음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울린 감동적인 연설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셨습니다.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하신 모습, 그이의 곁에 서서 기쁨의 웃음지으며 삼으로 흙을 떠옮기는 일군들, 허공에 뿜다 사뿐 떨어지는 흙, 봄바람에 흩날리는 보얀 흙먼지들...

그 가슴뜨거운 화폭을 보며 이 나라의 남녀로소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었다. 비록 한상의 사진문헌이지만 조선의 정치를 알게 하고 정도자의 품포를 알게 해주는 뜻깊은 사진문헌이었다. 삼, 인류사회의 발전과정에 창조와 건설을 위해 삽이 나온지도 이리 헤아릴수 없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한삽에 그처럼 큰 력사의 무게가 실린적이 고금동서에 과연 언제 또 있었던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뜨신 첫삽, 그것은 인민사랑의 크나큰 첫삽이었고 만복의 레일을 더욱 성큼 앞당겨오게 하는 건설의 첫삽이었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력사에는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첫삽을 뜨시고 현지지도의 날과 날들을 보내신 절세위인들의 애민헌신의 모습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무리처럼 무수히 간직되어있다. 그 잊을수 없는 첫 화폭이 오늘도 사진문헌과 영화화면을 통해 길이 전해지는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오시어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대자연개조의 첫삽을 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엄하신 모습이다.

해방전 보통강은 해마다 정마월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큰물이 쳐 《토성량》과 서명양 및 대태령일대는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인민들은 물난리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42년에 이른 큰물때만 하더라도 성안의 5만여명의 주민들이 인명피해

를 비롯한 많은 피해를 당하였으며 주변의 2 000여정보의 농경지와 1 000여호의 농가가 물에 잠겨서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그리하여 해방전 보통강은 사람들속에서 《재난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으로 불리웠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주시고 조국에 개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을 이끄시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보통강일대를 돌아보시고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단호히 끝장내시려고 새 조국건설을 위해 그토록 할 일이 많은 속에서도 친히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현지에 나오시어 첫삽을 뜨시었던것이다. 그이께서 뜨신 착공의 첫삽이 그대로 인민의 애국열의를 북돋아주어 보통강개수공사는 단 5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되었다. 그후 보통강주변에 인민을 위한 얼마나 많은 창조물들이 키들움하며 솟아올랐는가. 도처의 유원지들과 친리마거리, 락원거리, 창평원과 청류관, 빙상관, 인민문화공원, 평양체육관...

해방전 인민들이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보통강은 행복의 강, 락원의 강으로 전변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신 때로부터 이 땅에서는 인민의 불행과 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 즐거차게 벌어졌다. 토지정리와 새땅찾기, 산림조성과 강하천정리, 간석지건설과 갑문건설, 관개공사...

그 나날에 진눈까피 흘날리는 한밤중에 회불을 드시고 저수지자리도 잡아주시고 비바람에 옷자락을 적시면서 비단섬의 감랑길도 걸으시었고 머뭇머뭇 서해갑문건설을 위해 바다길을 향해하신것을 비롯하여 대자연개조사업에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애민헌신의 자욱

이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이 땅에 펼쳐진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도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의 모란봉과 문수봉에서 몸소 나무를 심으시면서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재부로 전변시켜주시려 마음써오신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위대한 김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였다. 그이의 애민헌신속에 대규모 모적인 토지정리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자연호흡식 물길들이 대지를 뿔어났으며 구월산, 칠보산을 비롯한 많은 명승지들과 명소들이 인민의 유원지로 더욱 훌륭히 꾸러지고 주체철, 주체비날론폭포가 솟아져 부강조국건설의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다.

진정 공화국의 훌륭한 력사는 절세위인들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사랑과 헌신의 력사, 현명한 령도의 력사이다. 수도와 지방, 공장과 농촌, 어촌, 두메산골 그 어디에나 인민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애민헌신의 땀방울이 스며있지 않은데가

없다. 백두산위인들의 끝없는 인민사랑으로 인민의 세상이 행복의 락원이 펼쳐지고 그 현명한 령도의 손길들에 받들려 공화국은 날로 키들움하며 자기의 발전을 앞당겨왔다. 그 인민사랑의 창조물건설을 위한 《첫삽》을 오늘날은 백두산위인이시며 인민사랑의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복받은 이 대지에서 또다시 뜨신것이다.

지난 몇년여간에 무수히 일떠선 인민사랑의 창조물, 재부들에는 어느것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색과 실험, 로고와 헌신이 깃들여있지 않은것이 없다.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높은 리상에 받들려 마시령 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도 태어났고 누구나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려명거리의 물론이요 산간문화도시의 표준으로 된 삼지연시, 양덕온천 문화휴양지의 별천지와 같은 모습들도 펼쳐져있다.

은 나라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만도 무려 113건을 지도하여주시고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형성안은 무려 2 000여건이나 보아주시였으니 그이의 애민헌신

의 손길이 어려있지 않은것이 없애 행복의 웃음속에 격정의 눈물을 짓는 공화국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시는데는 오늘의 정면들과 전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일관시키며 사회주의보건을 전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증진시키는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보건의료 발전시켜나가기려는 인민의 어버이이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선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타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우선사안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한길만을 걸어가는 현재의 위인을 모시어 이 땅에서는 기쁨과 행복의 웃음이 날로 커지고 인민사랑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려이 태어나고 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새로 일떠서게 될 평양종합병원

매혹과 흥미

정깊은 미소, 따뜻한 인정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해 룬할 때 누구나 감동깊게 이야기하는것이 그이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정미이다. 인정미는 인간의 향기와도 같은것이다. 아름다운 꽃도 향기가 있어야 벌들이 날아드는것처럼 사람도 인정미가 있어야 품격이 돋보이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끌려들게 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 한없이 친근한분이다. 그이께서는 물고기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에도, 삼복의 폭염속에서 인민들이 리용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아주시는 때에도 햇빛같은 미소를 지으시였고 질풍은 학습장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흠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시며 몸소 《세상에 부림없어라》라는 글발을 남기실 때에도 시종 환하게

웃으시였다. 정녕 공화국인민들이 사는 그 어디에서나 봄빛같은 그이의 정깊은 미소를 볼수 있고 그이의 따뜻한 시선을 체부르 느낄수 있다. 그 따뜻한 미소에서 인민들은 자신께서 겪으신 천만고생은 고스란히 묻어두시고 인민들에게만 안겨줄 행복의 선물이 마련되는 기쁨의 그 순간이 찾아올 때면 그리도 무한한 희열의 세계에 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바다 뜨거운 인정미를 가슴부풀게 안아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천여버의 사랑과 같이 온 나라 인민을 따사로온 환풍에 안아보살펴주는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욱 마음을 쓰고 따뜻이 감싸안아주시며 일으켜세워주는 뜨겁고 열렬한 사랑, 더고 정으로 인민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사랑속에 온 나라 인민

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그이께서는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들을 잃으면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은 슬픔을 억척하지 못하신다. 뜻밖에 희생된 한 전사의 얼음장같은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해주었는데 그 진정을 받아주시지 않고 우리결을 떠났으니 너무도 무정하다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일군들이 이렇게 하나둘 우리결을 떠날 때마다 가슴이 못 견디게 쓰리고 아프다고 하시며 솟구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은 행복한 인민들의 모습을 보실 때면 눈부시도록 환한 웃음을 짓곤 하시지만 눈물 또한 맑은분이다. 그이의 고결한 인정미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적대세력

들의 제재압박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허나 그 거대한 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고있다. 이에 대한 답은 몇해전 뜻밖의 재앙앞에서 한 로인이 러친 진정의 말에서도 읽을수 있다. 《당에서 다 돌보아주는데 그 까짓 집을 잃어버린것이 무슨 대수겠소. 단지 제일 큰 근근은 인정에 무신 우리 원수님께서 이 사시를 아시면 또 주무심을 잊고 얼마나 가슴아파하실가 하시는것이요.》

인민의 불행앞에서 가장 큰 아픔을 느끼시고 인민이 좋아하면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정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아는 온 나라 인민이기에 누구나 그이를 한마음뜻으로 따르고 그이품에 스팀없이 안겨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유급주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공화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정면들과전이 과감히 전개되고있다. 삼지연시 꾸러기 3단계공사, 순천리비도공정건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단천발전소건설과 같은 방대한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있으며 금속, 석탄, 전제품공업과 경공업부문 등에서 련일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강원도, 평안북도 를 비롯한 지방들에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경공업부문을 발전시키고있다. 국가와 인민이 힘차게 전개하는 정면들과전의 위력은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힘에 있다.

오늘의 전진과 래일의 승리에 대한 믿음 없으면 부닥치는 난관과 도전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정면들과전을 생각할수 없다. 사람이 신념이 없거나 의지가 약약하면 래일에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눈앞의 어려움이나 고난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며 물러앉게 된다.

신념은 미래를 본다고 한다. 신념이 강하면 자력자강의 힘도 배백하여진다. 주제105(2016)년 4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칠때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체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면 신념이 강해야 한다고, 신념의 강자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정의 길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력자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혁명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암살책동을 분쇄하고 승리하는 길은 자기 힘을 키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 누구도 발전의 길을 선사하지 않는다.

자력자강의 정신이 강하면 어떤 도전도 용용히 물리치고 화를 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공화국의 전 력사를 통하여 힘있게 확증된 리리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2월전진회의에서도 오직 혁명임무를 스스로 감행하는것에서부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결쌍인 예로와 격난을 뚫고 수도의 한복판에 솟아오르게 될 평양종합병원은 적대세력들의 더러운 제재와 봉쇄를 웃음으로 짓부셔 더 좋은 래일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과 우리 혁명의 굴함없는 형세를 그대로 파시하는 마당이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휘황한 설개도를 펼쳐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밝은 래일을 리며 오늘도 정면들과전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필승의 신념과 의지에 넘쳐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인민에게는 밝은 전도와 양양한 미래가 있다. 본사기자 리 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어 호젓하고 즐거운 상태를 행복이라 할수 있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어느해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셨다. 물고기처럼 맑게 기뻐하는 보양생들과 생선군을 앞에 놓고 좋아라 방글거리는 아이들, 공기밥은 물고기를 날라가는 과학자가족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그 사진들을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연할수 없는 회월에 넘치신듯 정말 이런 멋에,

순간에 속이 몽클해오는 행복이라시며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몽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 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 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으로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을 더 잘해나가는 글발을 남기시였다. 이 글발에는 인민의 행복원천 모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는 그이의 행복판이 비껴여있다. 물고기잡이를 위한 고기배들

무어 수산사업소에 보내주도록 하시고 어선의 이름을 풍요한 가을처럼 바다에서도 물고기대풍을 안아오라는 의미에서 《단풍》이 되셨으며 행복의 창조물들과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들을 보실 때면 온 세상을 얻으신듯만연에 환한 웃음지으시며 그리도 기뻐하시는데, 인민을 위해 사시고 인민의 행복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인민의 령도자. 인민은 그이를 따르고 그이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산다. 최성일

온 겨레에게 민족단합의 현장을 안겨 주시어



오는 6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발표 27돌이 되는 날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 앞에 엄중한 위협이 조성되었던 시기에 발표되었다.

1990년대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 반동세력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시키고 그 무슨 《특별사찰》을 운운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공화국의 최고리익을 엄중히 위협해나섰다.

조성된 정세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머리에 드리운 핵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비범한 예지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 4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민족주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획기적인 대책으로서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정결과 신앙, 제도와 소속, 거주지역과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민족대단합한장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아버지수령님의 주체적인 민

족대단결사상과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한없이 넓은 포용력과 덕망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한자한자 작성하시고 발표하시어 전체 조선민족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굳게 묶어세우시고 온 민족의 총동원력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신것처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세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런 애국애족의 강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놓으심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또 하나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통일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는 민족단합의 총

서인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여주시으로써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이정표를 받아안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이룩되게 되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발표된 후 지난 기간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확대강화하고 통일행사들에서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이룩하였으며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하는것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할것이다.

문은별

제주도해녀와 나누신 이야기

주체56(1967)년 8월초 어느날이었다.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 지지도 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수산사업소에 지난날 제주도의 해녀였던 나이 지숙한 녀인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친히 그를 가까이 부르시었다.

무슨 사연인지도 알지 못한채 차에 오른 녀인은 얼마후 어느 한 곳에 도착하였다.

안절부절 못하는 그 녀인의 앞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주 걸어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시라고 해서 앉았다고 하시며 고향이 제주도라기에 함께 이야기나 하자고 이렇게 수고로이 오시라고 했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걸음을 늦추어 녀인과 나란히 다니시며 년세는 어떻게 되었는가, 고향은 제주도 어딘가고 물으시었다.

녀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어떨 가나 금수강산이니 필경 제주도도 경치가 좋을것이라고 하시었다.

녀인은 어려움도 있고 제주도경치에 대하여 함양동안이나 자랑을 늘어놓았다.

녀인이 두서없이 하는 자랑을 흥미있게 듣고나신 그이께서는 고향에 가까운 혈육이라도 있는가고 물으시었다.

두고은 딸이 있으며 헤어지진 30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가까이 지내는 동무들끼리도 얼마만 만나지 못하면 그리워지는데 친혈육이 30년 세월을 서로 갈라져 소식조차 모르고있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는가고 하시며 오늘은 우리하고 함께 보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가 휴양소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도록 각별한 사랑을 돌려주시고 선물까지 보내주시었다.

그때로부터 꼭 한해가 지난 여름

어느날 또다시 그 녀인을 불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다에 나가겠는데 함께 나가자고, 어귀뒤맡고 어서 배에 오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끄시었다.

잡시후 배는 부두를 떠났다.

일군들에게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주시는 그이께서는 녀인에게 다가가시어 고향에 두고은 딸생각을 했는가고 물으시었다.

그렇다는 녀인의 솔직한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배길에 제주도와 잇닿아있으니 고향생각이 왜 나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오도록 남쪽바다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이 배를 타고 내져 제주도까지 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물새들도 자유롭게 북과 남을 오고가는데 한피줄을 나누는 부모저자들이 서로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이께서는 뒤말을 잊지 못하시었다.

《우리 모녀때문에 너무 속을 쓰지 마십시오.》

녀인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혈육들이 서로 갈라져 이제는 얼굴도 모르게 된 이 비통한 일이 어찌 어머니네한 가정만의 비극이겠는가, 온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시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두고 못내 가슴아파하시었다.

이날 저녁 그이께서는 속소알 백사장을 거니시며 일군들에게 지금 국도의 량단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조국통일은 더이상 머물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주도해녀를 다시 만나보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교시하시었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을 일군들은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한일혁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전후 북남협상제안을 지지하여

민족적공지와 자주심에 넘쳐

중국 심양에서 발행되는 잡지 《백두-한나》(2019년 8호)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지구협회 백경현 회장이 쓴 글이 실리었다.

그는 글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은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피로써 영구불멸의 조국천선을 맺으시고 정성껏 키워주시어 두 나라 인민들이 세대의 세대를 이어 우호적으로 지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었으며 세계자주투쟁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어 조선인민뿐 아니라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있습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정치가나 명도자들이 많지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같은 위인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승려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한치의 틀림도 없이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넘쳐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눈

이 솟아 빛을 뿌릴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내 조국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원인이 찬란히 꽃피어나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게 될것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지구협회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해 불철주야의 혁명실력을 수놓아가고계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인중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시고 주체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한길을 곳곳이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천하제일위인을 전채 조선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이 세상 타 없는 민족적공지와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지구협회의 모든 공민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철동같이 묶어세우며 그이께서 조선반도와 지역외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고 조국인민들과 해외공민들의 자주적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쌓아올린 민족의 업적을 옹호하고 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 남은 생을 깡그리 바쳐나가겠습니다.

전후시기에 와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점차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압록의 장막을 뚫고 로동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임금인상, 8시간로동제의 실시 등을 요구하여 부산, 군산, 마산의 부두로동자들이 벌린 투쟁으로 시작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양적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장성하였다. 남조선농민들도 점차 투쟁에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학생운동도 활기를 띠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에 대한 대중적불만의 장성과정은 조국통일에 대한 지향이 커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1954년 10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차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협상과 접촉을 실현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촉진할것을 제안한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북남협상의 길에서 조국통일의 서광을 내다본 남조선인민들은 이 호소문을 적극 지지하여나섰다.

분계선까지도 경기도 파주로부터 남해바다가 목표에 이르는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 공화국의 호소문과 그를 지지하는 배라들이 수 많이 뿌려졌다.

1955년 1월 전라남도 순천군의 한 농촌마을에 뿌려진 배라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었다.

《1. 전체 인민들이여! 우리의 피와 땀으로 지어놓

은 날을 공출, 백여종의 잡부금으로 빼앗아가고 빈궁과 기아만을 남겨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선전에 속지 말고 남북협상을 위하여 투쟁하자!

2. 전체 인민들이여! 협의로써 해결보지 못할만한 난문제나 분쟁문제는 없다. 조선민족은 하나이며 조선은 조선사람의것이다. 조선문제는 조선사람의 손으로, 1954년 10월 최고인민회의결정에 의한 남북협상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자!》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은 북남협상을 지지하는 선전물들을 남조선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 지어는 《정부》기관에도 널리 보내는 대담한 활동을 벌렸다.

당시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화국의 호소문은 《민도의원의원》들에게 36통, 《행정요인》들에게 64통, 《행정요인》들에게 47통,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에게 87통, 언론, 예술계와 기타 실업가대표들에게 144통이 보내졌으며 이밖에 선전배라로 된 호소문은 2 991장, 편지는 2 215장에 달하였다.

남조선에서 북남협상개최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날로 더욱 높아갔다.

남조선의 언론계에서도 통일을 지지하는 론조가 대두하게 되었다. 《한국일보》는 사실에서 《남북이 서로 접근하고 협상하여야 한다는 전국민의 갈망에 의하여 우리는 통일문제를 토

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대표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를 제의한다. 우리는 정견 및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국가통일을 갈망하는 여하한 사람도 환영하고 그들과 협의할것이다.》라고 썼다.

이러한 정세발전은 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와 같은 력사적회합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겨레의 지향이 높아가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외세와 리승만단체 《정권》은 남조선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은 공화국의 정당한 제의를 악랄하게 반대해나섰다.

그들은 북남협상에 기초한 통일방안을 지지하거나 그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른바 《국시를 위반한자》 미친듯한 인민탄압을 감행하

여나섰다. 1955년 한해동안에만도 체포구금된 남조선사람은 11만 1 700여명에 달하였다.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이러한 반민족적책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더 크게 자아내었다.

이 시기 남조선에서는 진보당이 출현하여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투쟁강령을 제시하고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열정책과 파쇼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이 투쟁에서 진보당의 위인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이게 되었고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지지는 1956년 5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명백히 표시되었다. 평화통일강령을 내세운 이 당의 립후보가 선거가 독압과 사기협잡속에서 감행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리승만이 갖은 날조로 얻은 투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표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은 것이다.

미국의 출판물까지도 선거결과를 논평하면서 《대통령선거에서의 대중적반대는 권력의 변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이 장성되어가고있다는 것을 반영하였다. 조봉암의(조선의 평화통일옹호)는 의심할바 없이 남조선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던것이다.》(《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1956년 6월 26일)라고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외세의 식민지파쇼통치와 민족분열정책을 반대하며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절절히 념원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진보당당대회

본사기자



친일적폐세력청산을 요구하는 남녘의 민심

남조선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각계층 주민들속에서는 일본에 아부굴종하는 친일적폐세력의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한국대학생 진보련합》(대진련) 소속 대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라경원의 옆에서 《사사건건 아베편》, 《4월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러한 광경은 《미래통합당》이 내세운 다른 후보들의 선거유세장들에서도 펼쳐지고있다고 한다. 서울지역에 출마한 이 당의 황교안, 라경원, 오세훈, 김태우가 걸거리에 비난공세에 시달렸다. 청년학생들은 《친일종족주의전사가 되겠다》고 말하였는데 어떤 의도냐?, 《친일매국노는 정계

무대를 떠나라.》며 분노를 터지였다.

남조선의 청년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주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친일매국세력의 청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일본의 군국주의적침략야욕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함께 심나라족속들에게 아부굴종하며 침략의 길 안내자로 나서고있는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친일매국세력을 단호히 정벌하려는 굳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다 아는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제일 많은 의석을 따내겠다며 기만적인 선거운

동놀음을 벌리고있는 《미래통합당》으로 말하면 친일굴종사상이 뼈속까지 들어찬 친일파, 매국노들의 집단이다.

이 당이 숭상하는 조상인 박정희가 일제시기부터 친일매국행위를 한 특등친일주구이고 집권하자마자 일본과의 범죄적인 회담을 벌여놓고 굴욕적이며 매국배적적인 《협정》이한것을 체결하여 두고두고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박정희의 뒤를 이어 쿠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전두환 집권세력 역시 별의별 해피한 친일매국행위를 다 부리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민정당》, 《민

진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끊임없이 간판을 바꾸어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반역당의 친일매국기질에서는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난해 일본이 남조선대법원의 정당한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을 놓고 적반하장으로 높아이며 경제보복의 칼날을 들이댔을 때에도 온 남조선인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유독 《자한당》(《미래통합당》의 전신)패거리들만은 가해자인 일본을 비호두둔하는 역적질을 하였다.

군사적제침을 노리는 일본에 침략의 길을 대주는것과도 같은 어리석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보존해야 한다고 녀두리질을 한것도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한당》패거리들이었다.

황교안을 비롯한 반역당의 우두머리들은 《현 정부가 반일선동을 하고있다》, 《신채주정책》이라고 결코 늘어지다 못해 《지금은 친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일토당토않은 망언까지 늘어놓아 온 남녘겨레의 분노를 샀다. 원래 황교안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권》시기 《일본자위대입국을 허용할수 있다》는 망언을 했고 일제강점기정체절을 위한 박근혜의 기업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절을 위한 박근혜역의 친일매국정책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날던 공범자, 친일분자이다.

지금 인민들로부터 락선대상의 하나로 락인되어 규탄을 받는 《미래통합당》의 이전 원내대표였던 라경원도 각계층의 일본상품불매운동을 《감상적민족주의》, 《신채주정책》이라고 결코 늘어지다 못해 《지금은 친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일토당토않은 망언까지 늘어놓아 온 남녘겨레의 분노를 샀다. 원래 황교안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권》시기 《일본자위대입국을 허용할수 있다》는 망언을 했고 일제강점기정체절을 위한 박근혜의 기업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절을 위한 박근혜역의 친일매국정책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날던 공범자, 친일분자이다.

지금 인민들로부터 락선대상의 하나로 락인되어 규탄을 받는 《미래통합당》의 이전 원내대표였던 라경원도 각계층의 일본상품불매운동을 《감상적민족주의》, 《신채주정책》이라고 결코 늘어지다 못해 《지금은 친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일토당토않은 망언까지 늘어놓아 온 남녘겨레의 분노를 샀다. 원래 황교안으로 말하면 박근혜 《정권》시기 《일본자위대입국을 허용할수 있다》는 망언을 했고 일제강점기정체절을 위한 박근혜의 기업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절을 위한 박근혜역의 친일매국정책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날던 공범자, 친일분자이다.

지금 인민들로부터 락선대상의 하나로 락인되어 규탄을 받는 《미래통합당》의 이전 원내대표였던 라경원도 각계층의 일본상품불매운동을 《감상적민족주의》, 《신채주정책》이라고 결코 늘어지다 못해 《지금은 친

《친일자위대원》이라는 치욕적인 별명까지 붙여주었겠는가.

다리부러진 노루 한쌍이 모인다고 남조선인민들이 저주하고 규탄하는 친일매국노들이 모인 집단이고 그력을 보아도 친일매국정당인 《미래통합당》이 남조선인민들의 규탄배격을 받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래통합당》의 얼굴에 찍혀져있는 《친일매국정당》이라는 치욕의 락인은 그 어떤 분칠을 해도 지울수 없는 영원한 락인이다.

이번 친일매국노들의 집단이 선거에서 이겨보겠다고 선거판을 어지럽히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가만있을수 없는것이다.

최근 지은데로 가가미련이라고 친일매국행위만을 일삼아온 《미래통합당》이 력사의 심판대우에 오르는것은 피할수 없는 속명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남조선에는 악성비루스감염증사태를 저들의 추악한 목적달성에 써먹으려는 세력이 있다.

《COVID-19》사태를 권력쟁탈야욕실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열을 올리고있는 《미래통합당》세력이 그러하다.

지난 3월말 《미래통합당》대표 황교안은 관훈토론회라는데서 《COVID-19》에 대한 현 《정부》의 《초기방역실패》와 그 무능 《황망한 경제실체》에 대해 입에 거품을 물고 고아했다. 마치 저들이 전염병확산방지에 관심이 있는듯이 주절거렸지만 속통이 시꺼먼 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소리는 역시 역스러울수밖에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패거리들이 저마다 언론들에 나서서 떠들어대고있지만 방역과 관련하여 들을 소리는 하나도 없고 전부 정치적적수를 공격하는 꾀변뿐이다.

악성비루스감염증을 막는것이 그 무엇보다 더 사활적인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방역대책은 안중에 없이 《정부》와 여당공격에만 집

요하게 매달리고있는것은 어떻게 하나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퍼 어부지리를 얻어 보려는데 그 비렬한 목적이 있음은 누구나 알수 있는 문제이다.

입으로는 《민생》을 넘볼처럼 외위대지만 정작 인민들의 생명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지금 명색이 정당이며 정치를 한다는 《미래통합당》이 하는것은 정쟁밖에 없다.

하긴 여당행세를 할 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아닌가. 수백명의 아이들이 배와 함께 바다속에 가라앉아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집권자는 침대우에서 뒹굴며 얼굴피부가꾸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수하종개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먹자판까지 벌여놓고 탄동을 부린 바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

살겠다. 갈아보자!》이게 민심》이라고 떠벌어대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과거 퇴행적인 발언》, 《상투적인 반정부선동》, 《선거용 거짓선동》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그러면서 오늘 남조선에서 갈아버려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정쟁에만 미쳐들어가는 《미래통합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천지》의 교적자들과 신도들을 다 찾아내어 악성전염병이 더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하겠는데 몸은 숨기고 방역사업에 불응하고 지어 도전해나서는 범죄집단을 감싸고도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것이 《COVID-19》가 사회에 더 만연되게 하려는 고의적인 술책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는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최근에도 《미래통합당》대표라는 황교안은 《교회내에 감염발생이 거의 없다》, 《교회에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매도해선 안된다》는 악담까지 내뱉은것으로 하여 각계로부터 《국민의 안전문제조차 정쟁에 활용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만을 고취하고있는 악성비루스정당은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전영민

를 전파시킨 《신천지》에 민심의 저주의 눈초리가 쏠릴 때 유독 《미래통합당》만이 《신천지》를 극구 비호두둔해나선것은 뒤가 커져서라하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신천지》의 교적자들과 신도들을 다 찾아내어 악성전염병이 더 퍼지지 못하게 막아야 하겠는데 몸은 숨기고 방역사업에 불응하고 지어 도전해나서는 범죄집단을 감싸고도 남조선 각계에서는 이것이 《COVID-19》가 사회에 더 만연되게 하려는 고의적인 술책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는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최근에도 《미래통합당》대표라는 황교안은 《교회내에 감염발생이 거의 없다》, 《교회에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매도해선 안된다》는 악담까지 내뱉은것으로 하여 각계로부터 《국민의 안전문제조차 정쟁에 활용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만을 고취하고있는 악성비루스정당은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전영민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창원시 민단체가 3월 26일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강제징용노동자 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당한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원자들은 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체결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미군기지 에서 일하는 남조선노동자들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통보한데 대

해 폭로하였다.

미국의 반인권, 반노동적인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동북아시아의 폐련을 위해 존재하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필요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6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국민혈세를 내라고 강박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는 남조선주둔 미군은 나가라라는것이 창원시민들의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3월 27일 《로동자 불모로 방위비분담금상 강요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남조선주둔 미군이 저들 기지에서 일하는 남조선노동자들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면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밝혔다.

이것은 남조선노동자들을 인질로 삼고 미군유지

비분담금인상을 압박하는 처사라고 사실은 지적하였다.

사실은 남조선주둔 미군은 미국의 세계지배권확립을 위해 파견된 군대로서 여기에 비용을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남조선노동자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식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미군에 대한 반감이 높아질뿐이라고 사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 각계에서 미군유지비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

인민들이 죽든살든 정쟁에만 몰두한다

에 없다.

하긴 여당행세를 할 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을 《개, 돼지》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아닌가. 수백명의 아이들이 배와 함께 바다속에 가라앉아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에도 집권자는 침대우에서 뒹굴며 얼굴피부가꾸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수하종개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눈앞에서 먹자판까지 벌여놓고 탄동을 부린 바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

리지 않는 《미래통합당》이고 이 역적당이 게워낸 《미래한국당》인것이다. 이번 《미래한국당》이 잔머리를 굴러 갈취해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세금으로 마련된것이다.

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뜯어내어 탕진하면서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는 《미래한국당》의 파렴치한 태도에 민심은 《합천귀당》, 《국민혈세도적당》이라며 저주와 규탄의 화살을 날리고있다.

옛날 조선봉건왕조시기 백성들은 범보다 무서운것이 권력을 등대고 돈과 재물이 이끌이 한 탐관오리들이라고 고통만을 주는 이런 돈벌레들은 하루속히 박멸해야 할 버리지들이 틀림 없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만을 주는 이런 돈벌레들은 하루속히 박멸해야 할 버리지들이 틀림 없다.

김영철

그들의 눈에는 《COVID-19》가 아니라 오직 부귀와 영달의 안식처인 권력밖에 보이는것이 없다.

지어 《미래통합당》패들은 권력에 환장한 나머지 위험한 전염병전파집단을 비호두둔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남조선에서 《COVID-19》의 기본감염집단이고 전파집단인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이 오래전부터 멀수 없이 얽혀온 한몸동이라는것은 이미 많은 사실자료들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COVID-19》

와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최근에도 《미래통합당》대표라는 황교안은 《교회내에 감염발생이 거의 없다》, 《교회에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매도해선 안된다》는 악담까지 내뱉은것으로 하여 각계로부터 《국민의 안전문제조차 정쟁에 활용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남조선에서 사회적불안만을 고취하고있는 악성비루스정당은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전영민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정미 7 조약》을 날조하여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돈벌어내는 재간이 귀신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선거가 끝나면 사라질 이 가짜정당이 선거보조금을 타기 전에 《미래통합당》으로부터 3명의 《국회》의원을 《수혈》받아 원내교섭단체로 된것을 두고 이렇게 말할수 있다.

남조선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각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나누어주는데 이때 절반을 교섭단체에 지불한다고 한다.

이것을 아는 《미래한국당》이 선거보조금을 내주기 하루전에 원내교섭단체의 형태를 갖추어 원내 반기로 되어있던 돈의 두배가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아낸것이다.

돈이라면 그 어떤짓도 가

리지 않는 《미래통합당》이고 이 역적당이 게워낸 《미래한국당》인것이다. 이번 《미래한국당》이 잔머리를 굴러 갈취해낸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세금으로 마련된것이다.

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뜯어내어 탕진하면서 권력을 차지해 보겠다는 《미래한국당》의 파렴치한 태도에 민심은 《합천귀당》, 《국민혈세도적당》이라며 저주와 규탄의 화살을 날리고있다.

옛날 조선봉건왕조시기 백성들은 범보다 무서운것이 권력을 등대고 돈과 재물이 이끌이 한 탐관오리들이라고 고통만을 주는 이런 돈벌레들은 하루속히 박멸해야 할 버리지들이 틀림 없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만을 주는 이런 돈벌레들은 하루속히 박멸해야 할 버리지들이 틀림 없다.

김영철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본은 그후 통감통치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체계를 확립하고 방대한 침략군을 주둔시켰는 한편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까지 빼앗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내정권은 국가의 내부문제에 속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제 조치를 취하고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할 권리로서 주둔시켰는 나라는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내정권강탈의 《합법적》을 조선병합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당연한 중대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던것이다.

초기에 일본은 내정권강탈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의 각 부들에 들이민 일본인 《교문》과 《참어관》 등

을 통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간섭, 통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내정권통치 방식은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반기를 든 고종의 반일적 기반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로 하여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부러 일본은 조선의 내정권에 대한 장악통제를 강화하고 장차 병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고종황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교활한 일본은 조선민족과 세계여론을 기만 목적밑에 고종의 퇴위를 친일주구들을 부추겨 실현할 음모를 꾸미었다. 그 하나는 친일주구단체를 리용하는것이 다른 하나는 친일내각을 더 개악하는것이였다.

그러하여 일본은 1907년 5월 박제순내각을 해체하고 친일매국내각인 리완용내각

을 조직하였으며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우두머리인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으로 앉히게 함으로써 새 친일내각이 《일진회》를 지지기반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정책실현에 더 잘 복무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어 일본은 1907년 6월 《내각관제》를 전격적으로 개악하여 황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대신 내각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여 친일내각이 고종에게 대항할수 있는 체도를 마련하여놓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시 세상을 들쭉케 한 헤그딜사건이 일어났다.

러일전쟁의 도움을 받아 국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던 고종은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제2차 《민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리준을 비롯한 세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

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하였던것이다.

일본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것을 고종의 강제퇴위를 실현하고자 나아가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그러하여 조선침략의 피수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에게 헤그딜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내쫓는 다음 조선의 내정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할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상진의 지시를 받은 이토는 매국노들을 내세워 고종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하게 하였다.

고종황제에 대한 일본과 친일매국적들의 퇴위강요에 항의하여 서울에서는 대규모적인 반일시위가 벌어졌으며 그것은 일본침략자들과

의 폭력적대결로 번져졌다.

일본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야수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시내의 요소 요소에 폭압무력을 배치하고 어마어마한 경제진을 폈다.

서울시민들의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이토는 이미 작성한 범죄적계획에 따라 1907년 7월 23일 박리완용을 자기 집에 불러다놓고 《정미7조약》 체결을 강박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 다음날에 《정미7조약》이 일본에 의해 강압날조되게 되었던것이다.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봉건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야 하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료로 임명》하여야 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조선봉건정부는 일본통감의 《지도》, 《승인》, 《동의》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다.

《정미7조약》의 강압날조로 조선봉건정부는 외교권과 함께 내정권 등 권력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

일본은 이 불법무효한 《조약》을 내 놓고 조선에 대한 통감통치와 식민지화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노예적굴종을 강요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이쳤다.

일본에 의한 《정미7조약》의 날조는 철두철미 비법적이며 날강도적인 책동으로서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 합리화될수 없고 오직 천추를 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간악한 범죄행위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미래통합당》

호핑하는 각종 세척제와 물비누제품들



푹치수려하고 물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통약산기술에 통약산비누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통약산비누공장에서는 원료준비, 진공유화, 물처리, 혼합교반, 숙성, 주입, 포장 등 모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각종 물비누와 세척제, 가루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통합 생산체제도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

공장에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는 생산의 전공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척력, 내한성, 내열성, 점도, 유효물질유량 등 위생안전지표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비누들과 세척제들은 질과 위생안전성에 있어서 높

은 수준에 있다.

가장 인기있는 제품은 옷물비누이다.

탈색방지효과를 가진 여러 가지 재료들과 생물분해효소를 첨가한 각종 옷물비누제품은 피부와 섬유 손상이 없고 세척력 또한 비할바없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물물비누 역시 누구나 찾는 인기제품이다.

세척효과가 좋은 계면활성제에 기포안정제, 피부

보호제, 방부제, 향료, 색감 등 보조약제들을 섞어 만든 몸물비누는 피부의 영양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보호작용에 도움을 준다.

레몬향, 라벤더향과 생강향, 꽃향기 등은 적은 양으로도 놀라운 세척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여 또 그것들대로 사용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 통약산비누공장에서 —

100여개의 참매번식지 새로 조사확증

공화국 각지의 동물보호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진행된 조사과정을 통해 100여개의 참매번식지를 새로 발견하였다.

이번 조사과정에 강원도의 양양산동물보호구와 황해북도의 학봉산동물보호구에서 알을 품고있는 알컷과 여러 마리의 새끼들, 동지, 수림속을 날아다니는 한쌍의 엄지참매를 발견함으로써 참매가 전반적지역에서 번식도 하고 겨울도 나는 사실새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뿐만아니라 북부지대의 오가산자연보호구와 포태산동물보호구 등지에서 소나무와 이팝나무를 비롯한 키나무에 동지들 틈 참매들을 관찰함으로써 동물보호구들의 번식환경이 보다 유리해지고 참매의 마리가 급격

히 늘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특히 2015년에 설정된 함경남도 덕성군에 위치한 덕성참매보호구에서 보기 드물게 최고 5개의 알을 낳은 참매의 동지를 비롯하여 수십 개의 참매동지들을 발견함으로써 이 지역이 참매중심에 대단히 유리한 원동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본사기자



개성시 해선리에는 고려태조 왕건의 무덤인 왕건왕릉이 있다.

릉문으로 들어서면 제당과 비각이 있다. 제당안에는 왕건의 화상이 있으며 그밖에 고려를 창건하고 고구려의 통일지향을 계승하여 민족을 통합하여 나간 왕건의 생애에서 의의있었던 장면들을 그린 그림들이 있다. 2개의 비각안에는 각각 왕릉의 연혁을 기록한 룡비와 왕릉을 건설하고 보수정비한 내용을 기록한 룡비가 있다.

제당과 비각을 지나면 높은 단 위에 전형적인 고구려식 돌칸흙무덤의 모습을 갖춘

왕건왕릉이 있다.

왕릉(무덤)의 바깥둘레에는 쥐, 소, 범 등을 새긴 12개의 병풍돌을 세웠으며 그밖으로 돌간판을 돌렸다.

라서 있다.

왕릉의 무덤칸입구는 돌문으로 되어 있다. 돌문을 열고 들어서면 문길(안길)이 있다. 문길을 지나면 무덤칸이 있다.

역사(유적) 왕건왕릉

무덤무지의 높이는 8m이며 병풍돌의 대각직경은 19m이다. 왕릉의 네 귀에는 돌범이 놓여있으며 앞에는 상돌과 망주석, 돌등 등이 있다. 왕릉이 있는 곳보다 조금 낮은 돌계단과 셋째 단에는 왕건을 따라 통일 국가수립에 공헌한 8명의 측근신하들이 4명씩 량견에 갈

려놓는 긴 대가 있으며 동, 서, 북쪽의 세 벽에는 청룡, 백호, 현무, 참새와 소나무, 매화꽃을 비롯한 그림들을 그린 벽화가 있다.

왕릉과 그 주변에서는 옥띠고리, 띠고리모양의 금구, 국화무늬박이청자잔, 청동주전자, 금동좌상, 금동장식품을 비롯한 여러가

지 유물들이 알려졌다. 왕관을 쓰고있는 금동좌상은 실재한 왕건왕을 형상한 금속공예품으로서 귀중한 역사문화유물이다.

김진호

청명은 우리 겨레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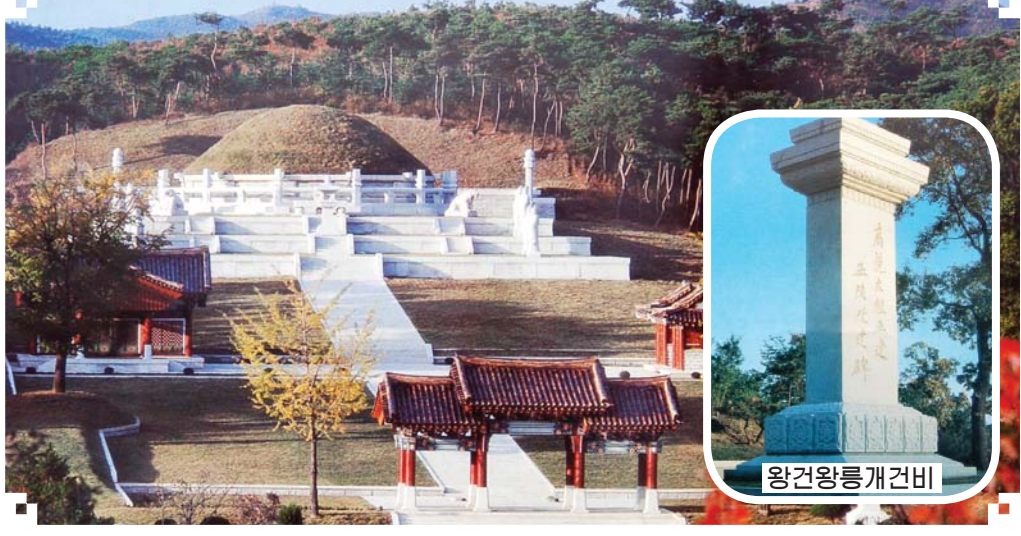
청명날 우리 선조들은 산에 올라 조상의 무덤에 잔디도 입히고 겨우내 낮아진 봉분에 흙을 얹어주면서 정성껏 손질하고 조상에 대한 조의를 표시하였다.

또한 이때에 묘를 다 큰 곳으로 옮겨쓰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천묘 또는 이장, 개장이라고 하였다.

청명은 또한 한해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지난날에는 청명을 전후하여 농촌에서 울버종자를 물에 담그었다가 모판에 뿌리었고 북부산간지대에서도 그 시기에 늦감자를 심었다.

우리 선조들은 청명이 되어오면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트랙의 꽃밭에 봉선화, 백일홍을 비롯



왕건왕릉개건비

사화

치마폭에 그린 포도송이 (1)

글 박홍준, 그림 채대성

신사임당은 조선의 역사에서 그리 많지 않은 뉴룩화가의 한사람이며 16세기의 큰 학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리목곡의 어머니이다.

신사임당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었다.

그는 동해의 경치아름다운 경포대에서 딸만 다섯을 둔 한 평범한 선비의 둘째딸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고 특히 예술적재능이 뛰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술화에 아들이 없는것이 한스러웠으나 그런대로 어린 딸들을 양육하고 글을 가르치는 것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이면서 그것을 락으로 삼았다.

신사임당은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글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붓글씨를 익히는 한편 그림그리기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었다.

그는 글공부를 하는 짝 짝이 트랙에 나와 놀다가도 러발에 날아드는 흰나비, 노랑나비, 범나비들과 울바자에 내려앉는 빨간 고추잠자리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치마폭에 그린인 제비들과 마당의 대추나무에서 깍깍거리는 까치들을 자세히 눈여겨보면서 그 모습

을 명바닥에 그려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때로는 마당 한구석에 가꾸어놓은 꽃밭앞에 쪼그고앉아서 국화와 나리꽃을 그리기도 하고 길가나 밭머리에 피어나는 민들레며 제비꽃, 메꽃 같은 것을 그리면서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그는 아버지가 글씨편승을 하라고 내어주는 종이를 한 장, 두장씩 모아두었다가는 그 종이에다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신사임당은 차츰 나이들면서 더욱 그림공부에 열중하였고 고향산천의 갖가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녀성다운 섬세한 필법으로 화폭에 옮겨놓곤 하였다.

그러던 신사임당은 19살 되던 해에 리세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받들면서 집안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으며 아들 넷을 낳아 그들을 교양하는데 각별한 정력을 기울였다. (리목곡은 그의 셋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집안의 주부로서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면서 신사임당은 그림공부를 계속

하여 그 화법이 날을 따라 더욱 현숙해졌다.

어느해 가을이었다. 먼 일가별되는 집에서 잔치를 한다는 기쁨을 받고 신사임당이 그 집에 나들이를 간 일이 있었다.

잔치집에는 손님들이 많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고 안팎이 흥성거리었다.

신사임당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일손을 도와주었다.

여기저기서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집안팎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있었다.

그런데 한 나자손님만은 이야기판에도 섞여들지 않고 아까부터 옷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 시름겨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신사임당보다는 대어섯살아래인 30전의 젊은 녀인이었다.

신사임당은 잔작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풀리었다. 처음은 녀자인데 옷차림으로 보아 이에서 잔치시중을 들어주려고 온 사람같지는 않고 면에서 자기처럼

나들이 온 손님이 분명했다. 아마 이 집과 사돈되는 손님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웬 일일까? 즐거운 잔치날에 와서 이렇게 시름겨워하는 것을 보니 무슨 목적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한 신사임당은 넋지시 자리를 떠서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워낙 성격이 찬찬하고 인정이 깊은 그녀였다.

《왜 이리고있어요? 무슨 시름이라든가 있으신지?》

신사임당이 이렇게 조용히 묻자 그녀는 몹시 당황해 하였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그녀는 다정한 언니처럼 자기를 살뜰하게 대해주는 신사임당의 너그러운 인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들었다.

《왜 왕실리인데 사돈집 잔치에 오느라고 이웃집에서 붉은 비단치마를 빌려 입고 떠났나?》

그런데 방금전까지 뒤마당이 옷들을 피워놓고 전을 지는 일을 거들어주다가 그만 치마에 붙제가 튀었다는 것이다.

모처럼 빌려입고 온 남의 소중한 비단치마를 못쓰게 만들었으니 녀인으로서의 여간만 걱정이 아니었다.

청명과 민속

이처럼 청명에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한해농사의 결속을 앞두고 햇곡식으로 음식을 지어 지성을 표시한 추석과 함께 조상의 묘를 찾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깃들여있다.

올해의 청명은 4월 4일이다.

본사기자

《그래도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나도 알면 못 쓰나요?》

신사임당이 재차 물었다. 그제야 그녀인은 신사임당의 거들어주는 물음에 한대중으로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도리어 실례라고 여겼는지 《별다른게 아니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녀인의 집은 동대문밖



《왜 이리고있어요? 무슨 시름이라든가 있으신지?》

신사임당이 이렇게 조용히 묻자 그녀는 몹시 당황해 하였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그녀는 다정한 언니처럼 자기를 살뜰하게 대해주는 신사임당의 너그러운 인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들었다.

《왜 왕실리인데 사돈집 잔치에 오느라고 이웃집에서 붉은 비단치마를 빌려 입고 떠났나?》

그런데 방금전까지 뒤마당이 옷들을 피워놓고 전을 지는 일을 거들어주다가 그만 치마에 붙제가 튀었다는 것이다.

모처럼 빌려입고 온 남의 소중한 비단치마를 못쓰게 만들었으니 녀인으로서의 여간만 걱정이 아니었다.

《그런데 형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가요?》

그 녀인은 절반 울가슴을 하고 이렇게 말하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신사임당이 그 녀인의 치마자락을 들춰보니 과연 한쪽구렁이에 머무르만 한 구렁이가 평 나있었다. 사연을 듣고보니 참으로 맹랑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신사임당으로서도 잔치집에 나들이 왔다는 몸이라 손에 땀이 없으니 어떻게 도와줄일이 없었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잠시 속으로 생각을 굴러보던 신사임당은 그녀인을 데리고 뒤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잔치집에 가고 늙은 할머니 한분만 남아있어 집안은 조용하였다.

신사임당은 주인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벽에 걸린 점점무명치마를 벗겨서 그녀인에게 내어주며 비단치마와 갈아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붓과 벼루를 얻어다가 먹을 갈게 하였다.

너군다나 그런 비단치마를 새로 한번 마련할수만 있다면 또 모겠는데 나들이옷 한벌 변변한것이 없어서 남의 옷을 빌려입지 않으면 안되는 구차한 살림형편에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 형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가요?》

그 녀인은 절반 울가슴을 하고 이렇게 말하며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신사임당이 그 녀인의 치마자락을 들춰보니 과연 한쪽구렁이에 머무르만 한 구렁이가 평 나있었다. 사연을 듣고보니 참으로 맹랑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신사임당으로서도 잔치집에 나들이 왔다는 몸이라 손에 땀이 없으니 어떻게 도와줄일이 없었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잠시 속으로 생각을 굴러보던 신사임당은 그녀인을 데리고 뒤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잔치집에 가고 늙은 할머니 한분만 남아있어 집안은 조용하였다.

신사임당은 주인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벽에 걸린 점점무명치마를 벗겨서 그녀인에게 내어주며 비단치마와 갈아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붓과 벼루를 얻어다가 먹을 갈게 하였다.

같은 인원수의 두 단체가 바줄을 잡고 마주서서 제정된 시간안에 서로 많이 끌어당기기를 겨루는 민족체육종목이다.

바줄당기기는 먼 옛날부터 여러 지방에서 널리 진행하던 민속놀이인 하나이다.

당시 줄당기기는 주로 비좁은 좁게 끈 원줄(길이 300~400m)에 약 1m 간격으로 여러개의 동줄(길이 3~4m)을 달아 만든 육중한 줄 두개를 서로 마주 연결하고 부락초강간 힘을 겨루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풍속

되는것이 있으면 자기의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준다.

이웃과의 화목을 중시하고 꽃피우는 이러한 아름다운 풍속은 살림집을 짓고 사는 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우리 민족의 살림집풍속을 보면 살림집들이 그 어떤 류형을 막론하고 외부와 폐쇄된 측면을 찾아볼수 없는 개방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다.

매 방들은 밖에서 안으로

같은 인원수의 두 단체가 바줄을 잡고 마주서서 제정된 시간안에 서로 많이 끌어당기기를 겨루는 민족체육종목이다.

바줄당기기는 먼 옛날부터 여러 지방에서 널리 진행하던 민속놀이인 하나이다.

당시 줄당기기는 주로 비좁은 좁게 끈 원줄(길이 300~400m)에 약 1m 간격으로 여러개의 동줄(길이 3~4m)을 달아 만든 육중한 줄 두개를 서로 마주 연결하고 부락초강간 힘을 겨루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바줄당기기

는 경우에는 그 줄을 떼우게 되어있다.

바줄당기기는 매와 장소,



조선봉건왕조시기 바줄당기기(북원도)

고려시기의 판묘이며 유학자인 정몽주는 자는 달가, 호는 포은, 시호는 문충이다.

1360년에 문과에 1등으로 합격하였으며 그후 성균관 박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일본에 건너가 왜구의 탄압을 강화하도록 일본측에 요구하였다.

1380년 윤봉의 황산 전투에 참가하여 왜구를 격멸하였으며 그후 밀직제학을 역임하였다.

1384년에는 정당문학으로 되었다.

1388년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리성계가 정치실권을 쥔 이후에도 문화관성사, 수시중 등의 높은 벼슬을 지냈다.

리성계는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시할수 없

는 존재했던 정몽주를 자기의 왕권탈취음모에 가담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몽주는 나라의 정치, 경제형편을 수습하는 데는 찬성하였으나 리성계의 왕권탈취음모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립장에 서있었다.

그리하여 리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중상을 당한것을 기회로 그 일파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였다.

그는 리성계의 왕권탈취음모에 가담하는것을 끝까지 반대한것으로 하여 리성계의 다섯째아들인 리방원과의 일당에 의하여 개경(당시) 선죽교에서 살해하였다.

저서로는 《포은집》이 있다.

본사기자

정몽주

《홍, 그런 말 마오. 눈 못 보는 나보다 눈은 사람들이 가끔 가다 부딪칩디다. 그래 내가 (여기 사람이 가오.) 하는 표시로 들고 나가는것이요.》

장님의 등불

한 장님이 밤에 집을 나서면서 마누라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집에 와있던 손님이 말했다.

《아니, 눈 못 보는 봉사님이 등불은 왜 가지고 나가